

‘안녕 · 풍년 기원’ 장수가야 대보름축제

장수군, 12일 의암공원서 봉화 퍼포먼스 · 달집태우기 등 진행

장수군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12일 장수읍 의암공원 주차장에서 ‘2025 장수가야 대보름축제’가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장수가야 대보름축제는 장수팔공청년회(회장 김상일) 주최로 진행되며 장수의 전통과 공동체 정신을 한 데 모으는 특별한 행사로 꾸며진다.
오후 5시 30분부터 장수를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풍물 공연과 행진으로 활기차게 시작되고 이어지는 풍년기원제에서는 최훈식 군수가 직접 기원문을 낭독하며 한 해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헌작 순서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봉화 퍼포먼스와 달집태우기다.
봉화 퍼포먼스는 장수가야 봉화대에서 채화

된 성화가 내외귀빈의 소원지와 함께 전달돼 장수의 밤하늘을 밝힐 달집 점화로 이어져 한 해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행사는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동시에 군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희망을 기원하고, 장수의 전통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수군에서는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30여 명의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해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2025 장수가야 대보름축제’ 포스터

‘찾아가는 어린이 문화예술 공연’ 작품 공모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21일까지 방문 접수... 선정 작품 4~11월 총 40회 상연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어린이들에게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 창의력, 상상력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작품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과학미술, 버블, 샌드아트, 연주회, 연극 등 다양한 장르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고 교육적인 작품을 엄선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21일 18시까지이며, 접수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우편이나

택배를 통한 접수는 불가하므로,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 서류를 갖춰 방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응모 자격은 전북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문화예술 공연단체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창의력 증진과 정서 함양을 목표로 기획·제작된 작품이어야 한다.
접수된 작품은 공모 작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작품은 공연 희망 작품에 대한 시군 수요 조사를 통해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창의체험관 공연장과 14개 시군 공연장에서 총 40회 상연될 예정이다.
이광영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2025년에는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의미 있고, 재미있는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북 도내에서 활동 중인 공연 단체들이 이번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어린이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화재안전 총력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오는 27일까지 도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39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가 오는 27일까지 도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39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 가운데 4개소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광역화재안전조사단이 참여하며,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도 함께한다.
이번 조사는 △소방시설·파난기구 설치 및 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적치물 여부 △건축·전기·가스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이와 함께 전시물(문화재) 반출 합동훈련과 관람객 비상 대피교육·훈련도 병행 실시한다.
이오숙 본부장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한순간의 화재로 역사와 문화가 사라질 수 있는 공간”이라며,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실전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시민 안전과 문화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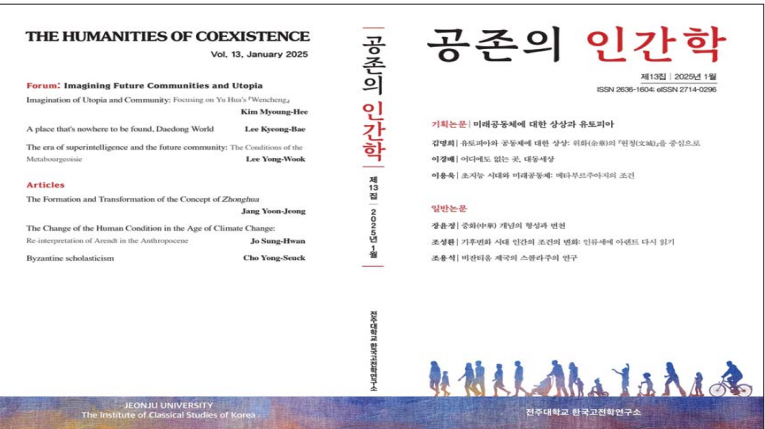
완주 예술인 창작환경 조성·역량 강화

완주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 참여예술인 모집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이 완주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2025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과 ‘2025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의 참여예술인 및 단체를 모집한다. 본 사업은 완주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예술인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모집 대상은 문학, 시각, 공연, 전통, 다원예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예술가 및 예술단체이며,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의 경우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술인이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개인 및 단체는 창작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전문적인 컨설팅 및 홍보지원도 제공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접수는 20일부터 28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다. 심사는 서류 및 인터뷰 심사로 진행되며, 이의 자세한 내용은 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wf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주문화재단 정철우 상임이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완주 지역의 예술인들이 창작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공존의 인간학 제13집 발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13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존의 인간학』은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공동체’와 관련한 세계적 수준의 담론 선도를 지향하며, 탈유교사회의 인간학과 미래공동체에 대한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 2회씩 발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에 발간된 『공존의 인간학』 제13집에서는 ‘미래공동체에 대한 상상과 유토피아’라는 주제로 기획논문 3편과 일반논문 3편 등 엄격한 심사를 거친 6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현재 『공존의 인간학』 14집 발간을 목표로 다양한 학문 성과를 모집 중이다. 수록된 논문은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https://www.jjac.kr/icsk)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궁궐에 따른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